

#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2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성연,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1  
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제도적·사업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촉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지상철도가 야기하는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문제, 그리고,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상철도 노후화에 따라 철도역 일대의 종합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노후화한 지상철도 대부분은 국가철도로서 지하화 사업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반영과 철도 입체화 전략적 추진을 통한 도시차원의 입체적 공간활용 방향 제시와 실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서울 관내의 지상철도 지하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제정 촉구 및 서울의 마스터플랜과 국가정책을 연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974년 지하철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철도 노선을 따라 서울의 중심지·일자리가 형성되었으며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현재,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각종 도시 기능이 집적된 시민 일상의 공간이자 역세권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지상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문제와 생활환경·도시미관 문제는 지속되어 왔고, 지상철도 노후화에 따라 철도역 일대의 종합적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즉, 지역 단절 해소,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철도 상부공간 활용을 위한 지상철도 지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특히 개발 가용토지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철도 상부공간은 미래 발전에 이용가능한 공공부지로서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단편적 개발을 넘어 역세권의 종합적 개발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요 철도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구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서울시 관내 대다수의 지상철도는 국철노선에 해당하며, 상당수 철도부지가 개발방치로 도시환경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상철도 지하화 등 서울의 마스터플랜과 국가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철도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도부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사업화 방안,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집행기관의 여러 관련 부서들의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촉구 등 서울시 관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조속한 추진을 이끌어내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3. 0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